

국내 주식 투자전략

아직까지 추세가 견고한 KOSDAQ시장

1. 오리무중(五里霧中) 그리스 사태

12일 EU정상회의가 분수령 될 듯

- 그리스가 지난 5일(이하 현지시간) 국민투표에서 채권단의 제안을 거부한 이후 7일 열린 EU정상회의에서도 개혁안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그리스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7일 EU정상회의에서는 그리스에 대해 9일까지 추가 개혁안 제출을 요청했고, 최종 협상 시한을 12일로 결정했다.
- 회의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독일 메르켈 총리는 그리스 경제가 붕괴 직전이고, 재정적자를 줄일 새로운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며 9일까지는 새 경제개혁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그리스가 제안한 단기 지원 프로그램을 거절했고, 그리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일시적 자금지원이 아닌 대규모 개혁을 전제로 한 다년간의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여전히 강경론을 지속하고 있어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 물론 12일 EU정상회의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경우 향후 2년간 ESM(European Stability Mechanism, 유럽재정안정화기구)을 통한 3차 구제금융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겠지만, 지난달 유로그룹회의와 7일 EU정상회의에서도 그리스가 새로운 개혁안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말까지 오리무중(五里霧中)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 KOSPI와는 다른 추세를 보이고 있는 KOSDAQ시장

아직까지 견고한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KOSDAQ시장

- 그리스 사태와 더불어 중국 증시의 급락세가 이어지면서 KOSPI가 중기추세를 가늠할 수 있는 120일 이동평균선을 하향이탈했다.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2/4분기 어닝시즌의 포문을 열었던 삼성전자의 잠정실적이 예상치를 밑돌면서 경계심리가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 KOSDAQ시장도 3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지난 3일 고점대비 5.6%의 하락세를 기록 중이지만 KOSPI와는 확연히 다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전형적인 상승 전환 패턴 중 하나인 상승삼각형 패턴을 완성했던 지수대인 720선을 아직까지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국내 증시 전반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만을 고려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KOSPI와 차별적인 패턴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720선의 지지력 테스트 과정을 면밀히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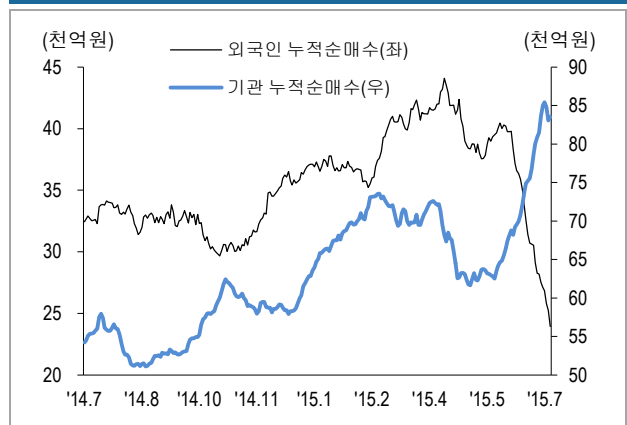
-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수급과 이익모멘텀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중소형주 및 KOSDAQ시장이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중소형주 수급의 키를 쥐고 있는 국내 기관은 지난 6일과 7일 이틀간 중소형주 및 KOSDAQ 시장에서 약 1,500억원 가량의 매도우위를 나타냈지만 전일에는 다시 순매수로 전환했다.
- 또한 2/4분기 이익추정치 하향조정이 본격화된 6월 이후 대형주의 2/4분기와 3/4분기 영업이익 추정치 변화율이 각각 -1.9%, -2.3%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KOSDAQ시장의 경우 0.3%, 2.8% 상향조정된 바 있다. 2/4분기 이익수정비율(ERR, Earnings Revision Ratio)도 대형주가 7월 7일 현재 -0.39%에 머물고 있는 반면 중형주와 소형주, KOSDAQ시장의 경우 각각 0.05%, -0.03%, -0.23%로 상대적인 우위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결국 1) 기술적 측면에서 KOSPI대비 KOSDAQ시장의 추세가 더 견고하다는 점과, 2) 수급 측면에서 국내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는 점, 3) 2/4분기 어닝시즌을 지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이익모멘텀 우위에 있는 중소형주의 대안적 가치가 부각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대형주보다 중소형주 및 KOSDAQ시장에 대한 접근이 더욱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상승삼각형 패턴의 지지력 확인 중인 KOSDAQ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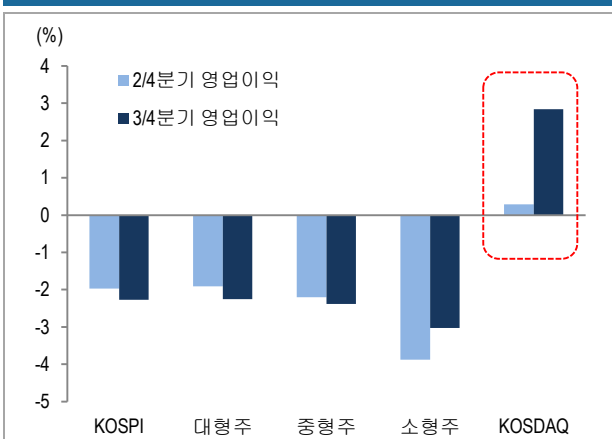
자료: MUG, NH투자증권 Portfolio솔루션부

중소형주 및 KOSDAQ시장 기관, 외국인 누적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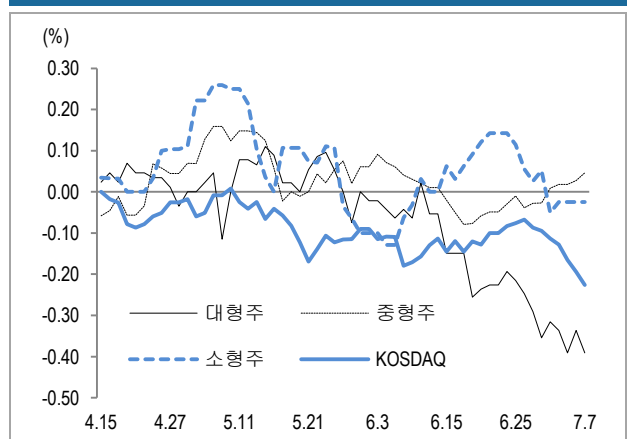
자료: Dataguide, NH투자증권 Portfolio솔루션부

5월말대비 시가총액별 분기 영업이익 추정치 변화



자료: Dataguide, NH투자증권 Portfolio솔루션부

4월 이후 시가총액별 2/4분기 ERR 추이



주: ERR = (EPS 추정치 상향종목수 - 하향종목수) / EPS 추정 전체

자료: Dataguide, NH투자증권 Portfolio솔루션부